

2017년 프랑스 대선과 프랑스 및 유럽의 변화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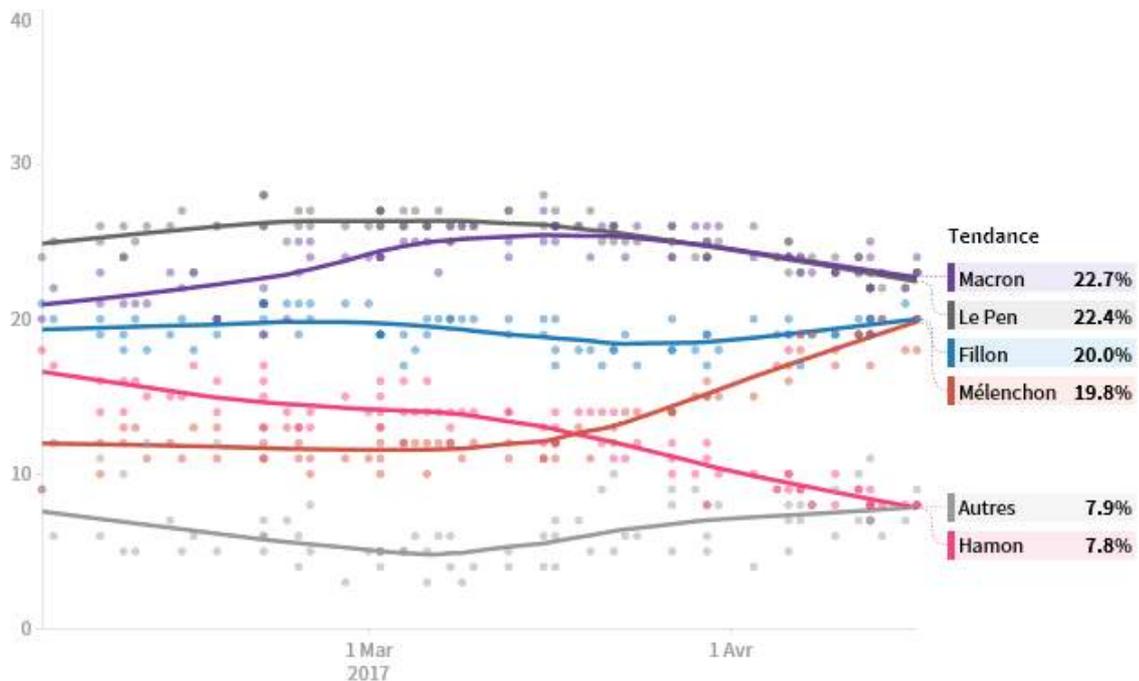
I. 프랑스 2017년 대선과정

(1) 프랑스 대선 일정

- 2017. 4. 23일 1차 투표, 5월 7일 2차 투표
- 1965년 이후 실시된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 단 한번 1차 투표에서 선거가 끝난 적은 없었다.
- 프랑스 대통령 선거 사상 최초로 양대정당(UMP, PSF)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한 선거

(2) 여론 변화 과정

- 사회당 현직 대통령인 올랑드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 재선 출마를 포기했고 이어서 사회당 당내 경선에서 Benoît Hamon이 이기면서 공천되었고 UMP에서는 사르코지 전대통령을 누르고 François Fillon이 이기면서 공천되었다.
- FN의 당수 Marine Le Pen이 대통령 후보를 나왔고 Hollande 정부의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이었던 Emmanuel Macron이 2016년 창당한 En Marche!의 후보로 출마하였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Front de Gauche정당에서 출마했던 Jean-Luc Mélenchon은 이번에는 France Insoumise 슬로건으로 다시 출마하였다.
- Le Pen과 Fillon의 2파전이 예상되었지만 지난 1월 말 Canard Enchaîné라는 풍자 주간지에서 Fillon 후보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Fillon의 지지는 급하락하였고 곧 이어서 Macron의 지지가 급상승하였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fr/2017/03/25/lection-presidentielle-2017-retrouvez-tous-les-sondages-grace_a_22011520/

(3) 중요 후보의 공약

Marine Le Pen

- 소속정당: Front National
- 정치성향: 우파 민족주의
- 주요공약: 반이민, 반난민, 친러시아, 유럽연합 탈퇴, 유로존 탈퇴, NATO 탈퇴, 사형제도

François Fillon

- 소속정당: UMO
- 정치성향: 우파 보수주의
- 주요공약: 경제자유주의, 이민축소, 국가권위강화, 전통가치 보존, 50만 공무원 일자리 축소

Emmanuel Macron

- 소속정당: En Marche! (전진당)
- 정치성향: 중도파 중도주의
- 주요공약: 친기업, 자유시장경제, **유럽연합 강화**, 재정지출 축소, 150만 일자리 축소

Benoît Hamon

- 소속정당: 사회당
- 정치성향: 좌파 진보주의
- 주요공약: 보편적 기본 소득 도입, 대마초 합법화, 로봇 과세 등의 정책 (유토피아적인 동시에 개성적)

Jean-Luc Mélançon

- 소속정당: 좌파전선(Front de gauche)
- 정치성향: 극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 주요공약: 유럽연합조약에 대한 재협상

(4) 주요 이슈

○ Pro EU, Anti EU

① 르펜

-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의 탈퇴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회의주의자 르펜의 당선은 영국 탈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부정적을 떠나서 일단 르펜의 당선은 유럽연합 정책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 협상이 2년내에 끝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유럽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 또한 르펜이 주장하고 있는 단일통화권의 해체 및 쉥겐조약의 폐지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응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 내에서 유로존으로부터의 탈퇴 및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그의 공약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르펜의 당선 직후에 바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르펜의 당선으로 이러한 불투명한 유럽연합의 미래 때문에 증시가 흔들릴 수 있으며 프랑스 국채가 폭락하고 유로화 대신에 달러나 파운드화로 투자가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장기적으로 르펜의 프랑스 우선주의는 프랑스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유럽연합의 시장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마크롱

-마크롱은 유럽의 재탄생을 주도할 것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전 유럽의회 의장인 마르틴 슈츠와 더불어 유럽통합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이 르펜을 지지한 유럽회의적인 프랑스 유권자들은 선거 이후 마크롱의 당선에 크게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신인이며 그를 지지하는 정치집단이 크게 없어서 이런 정책은 프랑스 내 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마크롱의 친유럽정책이 유럽의 정책결정과정을 안정화시키며 독일과 함께 유럽의 문제를 해결해나간데 안정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중도좌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전세계의 우경화 추세 속에서)

- 마크롱 지지율 상승의 이유: 4/18일자 르몽드

4사람이 있고 문은 단 하나다. 프랑스라는 문이다.

멜랑송은 이를 부수고 피용은 이를 닫고 르펜은 봉쇄하고 오직 마크롱만이 이를 연다.

프랑스 사회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해있다. 미테랑 1기 이후 34년동안의 프랑스 사회의 실패는 이제 극에 달했고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시장 분석

JP모건은 마크롱이나 피용 후보가 승리할 경우 유로존(유로화사용 19개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돼 유로화 가치가 현재 유로당 1.06달러에서 연말에 1.1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렘 베르하겐 NN투자파트너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정치적 리스크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전망은 긍정적이고, 역내 수요에 기반을 둔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다음 달 7일 르펜 후보가 당선된다면 유로화 가치는 향후 수주 내에 유로당 0.98달러로 하락할 수 있다고 JP모건은 내다봤다. 유로화 가치는 이미 지난달 말 유로당 1.09달러에서 하락한 상태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 대비로는 이번 달 들어 3% 하락했다.

○재정구조 개혁

현재 프랑스의 공무원들은 모두 560만명으로 국가직 공무원과 요양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Fillon후보는 공무원 50만 감축을 Macron은 120만 감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재정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연금 관련인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Fillon과 Mélanchon은 소연금수혜자의 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반면 Macron은 연금은 현상유지이지만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확대를 약속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재정규모 확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 후보인 Hamon의 경우 보편적 기본 소득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어서 세수확보를 위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과세 및 대마 합법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 러시아와의 관계

Fillon과 Mélanchon은 비교적 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Macron은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II. 이론적 접근

(1) 정당체제의 변화

유럽정당체제의 변화에 관하여는 상반된 이론이 존재한다. 립셋과 로칸이 말한 정치균열이 '동결(freezing)'¹⁾되어 상당한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이론가는 메이어로서 그는 현실정치에서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 집권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대체 정치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²⁾ 서유럽 사회가 1960년 이래로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면서 균열구조도 바뀌어왔지만 이것은 기존의 균열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블록 내에서의 변화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³⁾. 따라서 정당체제 역시 큰 틀에서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크루는 영국의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정당선택의 요인 가운데 계급은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다시 말해 계급은 한 사회내의 다른 여러 가지 균열 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립셋과 로칸의 정치균열 동결은 그들의 논문이 씌여지던 시점인 1967년까지에는 적용되나 1970년대가 지나면서 서유럽 정당체제는 변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 키첼트는 립셋과 로칸의 정치균열동결체제는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적 변화와 정치구조가 결합되면서

1) Seymore Martin Lipset and Stein Rokkan,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Lipset and Rokkan (eds.) *Party System and Voter Alignment: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7).

2) Peter Mair, *Party System Change: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3) *ibid.* p.76-90.

4) Ivor Crew, "Voting and Electorate" in Dunleavy et al. *Development in British Politics 4* (London: Macmillan, 1993) pp. 100.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 립셋과 로칸의 계급 균열구조는 유럽정당체제의 기본구조이지만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교육정도에 따른 자유주의자(Libertarian)와 권위주의자(Authoritarian)의 균열이 나타나고 계급과 후자의 균열이 이차원적으로 각국의 정당체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좌우간의 계급 구분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좌파의 분파와 우파의 분파가 나타나면서 정당체제는 변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유럽통합의 가속화 및 세계화 등의 탈국가적인 현상이 진전되면서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균열이 또 다른 정당의 분열을 자극하여 유럽의 정당체제는 다차원적 구조를 가진다.⁶⁾

유럽의 정당체제가 계급균열로 동결되었다는 이론은 적어도 영국에서는 외형상 아직 유효한 듯 하다. 그러나 그 정당체제의 동결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영국의 선거제도에 의해서 사회의 변화가 정당체제로 표현되지 못하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국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국가로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제3당을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이다. 2001년 하원의원선거에서 노동당은 전국적으로 40.7%를 얻었지만 의석에서는 412석을 얻어서 전체 659석 가운데 63%를 차지하여 과대대표 되었으며 보수당의 경우에는 31.7%의 득표율로 166석을 얻어 전체 의석의 25%로 과소대표 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의 경우에는 18.2%의 득표로 52석을 얻어 8%의 의석밖에 얻지 못한 셈이어서 확실히 선거제도가 자유민주당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10명 이상의 후보를 낸 정당도 21개 정당으로 정당의 경쟁구조 자체가 단순하지 않지만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변화를 어느 정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륙으로 오면 이 균열구조가 상당히 다원화되고 있으며 1960년대의 정당체제는 변화되고 있다. 우선 이름은 바뀌지 않은 채 사회당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1970년대의 프랑스 사회당의 주요 강령은 2000년대 프랑스 사회당의 주요 강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요 지지계층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고 사회당의 주요 지지계층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르톨리니와 메이어는 선거에서 기존 계급 정당에 대한 지지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회의 계급적 균열 구조의 폐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⁸⁾ 잉글하트는 그러한 변화가 계급 정치를 낳았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같은 탈근대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⁹⁾

계급 정당이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계급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전통적인 지지계층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름만 변하지 않은 계급 정당을 1960년대와 같은 계급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국면에 대응한 정치적 창조행위는 계급이라는 균열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이데올로기적 정당체제 속에서 이전의 좌표를 그대로 고수할 수 없으며 이름은 같지

5) Herbert Kitschelt, "European Party Systems : Continuity and Change" in Martin Rhodes, Paul Heywood and Vincent Wright eds., *Developments in Western European Politics* (London : Macmillan, 1997), p.131.

6) Paul Taggart, "A Touchstone of dissent: Euroscepticism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3(1998), pp.363-388

7) Alfred Grosser, *Les pays d'Europe occidentale, Edition 2002*, (Paris: La documentations française, 2002) p.46.

8) Stefano Bartolini and Peter Mair,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The Stabilisation of European Electorates 1885-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9)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만 더 이상 같은 정당은 아니다.

또한 정당들 간의 경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계급균열구조를 기초로 한 정당체제에서는 좌우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정치가 전개되며 양당제인 경우는 좌우간 각각 한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이며 다당제인 경우에는 좌우간 각각 여러 정당이 좌우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로 경쟁해왔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다당제의 경우 중도 좌파 정당, 중도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변화는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 변화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¹⁰⁾ 1단계는 기존의 정당들이 새로운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강령과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다. 앞에 예를 든 사회당의 변화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정당이 변화에 실패할 때 유권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한다. 세 번째 단계의 변화는 경쟁구조가 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경쟁의 차원이 다원화되면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서유럽의 정당체제는 기존 정당들의 이데올로기 좌표의 변화, 새로운 정당의 등장-예를 들어 녹색당이나 극우파의 등장-, 마지막으로 사회적 균열구조가 다차원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들 사이의 경쟁구조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1970년대 이전 계급을 중심축으로 하여 일차원적 경쟁구조를 보였던 정당체제는 2000년대 다차원적인 경쟁구조를 가지면서 변화되어왔다.

(2) 정당체제의 변화원인

우선 사회경제적 변화가 유권자들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당체제도 변화된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자혁명이 부분적으로 대량 생산방식을 유동적인 특화방식으로 전환시킨다. 이에 따라 2차 산업 종사 노동자의 수를 격감시키고 대신 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2차 산업 노동자에 비해 서비스 분야 노동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단일한 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당에 의해서 이익이 대표되기 어렵다. 또한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면 경제적인 지위도 달라져서 노동자계급은 급속히 분화된다. 이 모든 과정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노동자 내에도 고학력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가 분화된다.

두 번째의 변화요인은 제조업 시장에서 국제 경쟁의 강화이다. 특히 신흥공업국가가 국제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서유럽국가들은 더욱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낮은 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진 신흥공업국가에 대항하기보다는 고부가가치상품으로 품목전환을 하고 이에 따라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본의 유통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서유럽국가들은 강화된 국제경쟁의 국면에서 복지국가에 드는 사회적 임금을 줄이고 유연한 시장 및 임금구조로 전환하게 된다.

세 번째의 변화요인은 고령화, 고실업 사회가 도래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노동구조가 변화한다.

이런 변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갈등은 계급보다는 부문별 갈등이 발생하고(예를 들어 안정된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 사기업과 공기업 등) 젠더역할의 변화, 환경보호의 공적 필요, 기술규제, 군비문제, 그리고 이민 등의 새로 등장한 이슈에 대한 견해차이가 고등교육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문화적 차원의 균열을 가속화시켜 자유주의자(Libertarian)와 권위주의적 문화속성을 가진 자로 분열시킨다.¹¹⁾ 따라서 좌파 내

10) Herbert Kitschelt, *ibid*, pp.135-136.

11) *ibid*. pp.137-138.

에서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좌파가 등장하고 극우파의 지지층도 확대된다.

(3) 프랑스 유권자의 투표성향

-유권자 투표성향에 관한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정당에 대한 일체감인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성향인지의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정당 일체감이 투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알려져있지만(Budge, Crewe and Farlie 1976)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졌다(Fleury and Lewis-Beck 1993; Inglehart and Klingemann 1976). 최근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계량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Foucault and Nadeau 2012).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프랑스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좌우 이데올로기 중심이었을 때에는 4당적 양극체제로 정당이 배열되어 있었고 이들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왔지만 프랑스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율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유권자들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으로부터 후퇴하면서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극우를 지지하며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극우로 지지를 바꾸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이 프랑스 극우정당이 FN의 성공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에서 유럽이 선거에서 중요 이슈 였던 적이 없었고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서 투표하는 프랑스인들의 경우 유럽은 덜 중요한 이슈로 비추어졌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비준과정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찬반양론 토론에 빠졌다. 당시 찬반의 축은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균열의 축과 맞지 않았다. 즉 좌우 양 진영내에서 각각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돌하였다. 결국 우파 진영은 당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상하양원 표결 당시 불참을 선언해야했던 RPR은 투표수칙을 제시하지 못했고 찬성입장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락 당시 대통령의 주류파와 달리 그의 가까운 측근이었던 파스쿠아와 세갱 등은 반대파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으로파스쿠아는 이후 RPR을 탈당하고 독자정당을 구성하였다. 좌파에서도 일찍부터 유럽에 반대했던 공산당은 별도로 하고 친유럽적이었던 사회당 내에서도 분열이 발생하였다. 슈벤느망을 비롯한 일부 사회당 인사들은 당론을 거스르고 반대진영에 서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1994년 유럽선거를 앞두고 탈당하여 MDC(Mouvement des Citoyens)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1992년부터 유럽이 당내 갈등의 한 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에서 유럽에 대한 찬반이 중요한 균열 축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대선부터 이제까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중심으로 형성되던 정치적 경쟁구도가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5공화국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후보가 참여한 대통령선거가 되었고 이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1995년이후보다는 상당히 많은 후보가 참여하는 대통령선거가 되었다.

<표1> 대통령선거 후보수의 변화

년도	후보수
1965	6
1969	7
1974	12
1981	10
1988	9
1995	9

2002	16
2007	12
2012	10
2017	11

이와 더불어 대통령선거에서 1, 2위로 2차 투표에 진출하는 후보의 득표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후보수의 증가와 더불어 1위와 2위의 득표율 합계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표> 1,2위 후보의 득표합계

년도	순위	후보자명	퍼센트	1,2위 합계
1965	1위	Charles De Gaulle	44.6	75.3
	2위	François Mitterrand	31.7	
1969	1위	Georges Pompidou	44.5	67.8
	2위	Alain Poher	23.3	
1974	1위	Valerie Giscard d'Estaing	32.6	75.8
	2위	François Mitterrand	43.2	
1981	1위	François Mitterrand	25.8	54.1
	2위	Valerie Giscard d'Estaing	28.3	
1988	1위	François Mitterrand	34.1	54.1
	2위	Jacques Chirac	20	
1995	1위	Jacques Chirac	20.8	44.1
	2위	Lionel Jospin	23.3	
2002	1위	Jacques Chirac	19.88	36.74
	2위	J.,M Le Pen	16.86	
2007	1위	Nicolas Sarkozy	31.18	57.05
	2위	Segolene Royal	25.87	
2012	1위	Hollande	28.53	55.70
	2dnl	Sarkozy	27.17	
2017	1위	Macron	24.01	45.31
	2위	Le Pen	21.30	

후보수가 적고 1,2위 후보의 득표율이 높으면 프랑스 정당의 경쟁구도가 2명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극체제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지만 후보수가 많고 1,2위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낮으면 그만큼 여러 후보들이 골고루 득표를 하면서 정당의 경쟁구도가 복잡해지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더불어 전통적인 정당보다는 새로운 신생정당의 후보들의 득표가 높아진다는 것은 프랑스 정당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프랑스의 정당들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정당보다는 대부분 그 역사가 짧고 빈번히 당명이 바뀌고 있지만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정당들은 전통적인 정당들의 분열 혹은 전통적인 정당들의 조정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정당들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정당의 균열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III. 2017 대선 결과

1. 프랑스 대통령 대선 결과

1) 1차

에마뉼엘 마크롱 865만7천여표, 24.01% (1위) / 마린 르 펜 767만9천여표, 21.30% (2위)를 획득하여 5월 7일 결선투표 진출을 확정.

제1야당인 공화당 프랑수아 피용 20.01% (3위) / 진좌파진영 장뤼크 멜랑송은 19.58% (4위)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5위로 6.36% (5위)

➔ 전체 투표율은 77.77%로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 (지난 2012년 대선의 투표율은 79.48%.)

2) 2차

에마뉼엘 마크롱 66.1% / 마린 르 펜 33.9%

+ 2017년 프랑스 선거 결과표 (4월 23일, 5월 7일), Wikipedia

후보	정당		1차 투표		2차 투표	
			Votes	%	Votes	%
에마뉼엘 마크롱	앙 마르슈!	EM	8,656,346	24.01%	20,753,798	66.10%
마린 르 펜	국민전선	FN	7,678,491	21.30%	10,653,798	33.90%
프랑수아 피용	공화당	LR	7,212,995	20.01%		
장뤼크 멜랑송	불복하는 프랑스	FI	7,059,951	19.58%		
브누아 아몽	사회당	PS	2,291,288	6.36%		
니콜라 뒤퐁테냥	약진하는 공화국	DLF	1,695,000	4.70%		
장 라셀	레지스통!		435,301	1.21%		
필립 푸투	반자본주의신당	NPA	394,505	1.09%		
프랑수아 아셀리노	대중공화당	UPR	332,547	0.92%		
나탈리 아르토	노동자 투쟁	LO	232,384	0.64%		
자크 슈미나드	연대와 진보	S&P	65,586	0.18%		
총합			36,054,394	100%	31,397,916	100%

2. 선거 평가

● 1차 투표

1) 득표율 1위와 4위 차이가 고작 4.2%, 누구도 압도하지 못했다

프랑스 대선 1차투표 결과를 놓고 세계는 서둘러 중도파 에마뉼엘 마크롱의 승리로 결론지었다. 1972년 창당 이래 최대 기록인 770만 표로 민족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는 유권자 21.43%를 득표했다. 2002년 역시 결선투표에 진출했던 FN의 장마리 르펜이 기록한 득표수는 553만 표였다. 주류 정치권의 중도 좌·우파 정당이 몰락하는 동안에 220만명이 불어난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실업률이 높은 북부 및 동부 산업지대는 르펜의 텃밭으로 변했다. 사회당의 수십년 아성인 북부 릴과 중도우파의 텃밭이었던 남부 니스가 FN에 넘어간 것은 중도 좌·우파 정당의 몰락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특히 르펜에 높은 충성도를 보인 북부·동부·남부에서 마크롱은 맥을 쓰지 못했다. 1차 투표의 득표율 지도를 보면 마크롱은 파리와 수도권(일-드-프랑스) 지역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를 굳히고, 북부·동부·남부를 제외한 내륙지역 곳곳에서 분산된 지지를 받았다. 표의 지역적 밀집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2) 프랑스 국민 두명 중 한명,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Un autre Monde est possible)”

막판에 군소후보에서 좌파 포퓰리즘의 돌풍을 일으키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프랑스 앵수미즈)’의 장 퉁 멜랑송 후보는 19.62%를 얻었다. 4위 멜랑송과의 지지율 격차는 4.24%로 미미하다. 노동자, 농민이 환호해야할 후보였지만, 정작 북부·동부의 러스트벨트(산업황폐화지역)는 르펜에게 넘어갔다.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던 사회당 좌파의 브누아 아몽(6.35%)을 포함하면 르펜과 멜랑송 등 세계화의 불만세력들의 득표율은 47.40%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장한 마크롱과 피용(19.94%)의 43.80% 보다 오히려 더 많다. 멜랑송이 결선투표에 나갈 경우 지지하겠다고 미리 선언했던 아몽의 지지층은 멜랑송의 지지층과 대부분 겹친다. 마크롱의 승리는 그야말로 신승일 뿐이다. 기성정계 및 엘리트들이 선거 전반에 걸쳐 조장해온 극우 경계심리에 기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승리다.

3) 포퓰리즘의 확산, 애써 외면하는 주류사회

중도 마크롱의 축배 뒤에는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다. 자본시장과 프랑스 국내외 제도들은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의미를 내리깔고 있다. “위기에 처한 생태문제와 관련해 르몽드와 그린피스 가운데 어느 쪽을 믿나. 에너지 문제에서 국영 프랑스2 방송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중에서 어느 쪽을 믿나...” 지난 23일 프랑스 대선 1차투표에서 4위로 탈락한 좌파연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프랑스 앵수미즈)’의 장 퉁 멜랑송이 투표 직전에 주요 신문·잡지·TV·라디오 매체들을 프랑스가 직면한 현안에 비유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르몽드는 이번 대선의 핵심은 국가 정체성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감정의 재발견’이었다고 짚었다. “세계화에 따른 자유무역이 전반적인 빈곤을 줄이지만, 동시에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감정이 특히 중산층 사이에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아니라면 멜랑송에 쏟아진 열광적 지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도 분석했다.

4) 중도 마크롱 vs 극우 르펜

예상대로 1차 대선 출구 조사 결과, 마크롱과 르펜이 23.7%와 21.7%로 1차 대선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주류 정당이 탈락한 결선이 되는 셈. 피용과 멜랑송은 19.5% 동률로 근소하게 컷오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거나 여론조사 상 마크롱이 결선에 올라가면 르펜, 피용, 멜랑송을 상대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차기 대통령으로는 마크롱이 유력해졌다.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 집권 사회당의 몰락이 결과만큼이나, 두드러졌다. 브누아 아몽은 6%로 여론조사 예상치보다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 2차 투표

- 프랑스 방송 출구조사 결과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숨기는 일명 '샤이'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샤이 표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선에선 오히려 르펜의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Ipsos가 조사한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마크롱 63% 르펜 37%로 나왔으나 실제 결과는 마크롱 66% 르펜 33%로 르펜은 4%가 떨어졌으며 오히려 마크롱이 3% 올랐다. 즉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의 샤이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담으로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투표자 중의 10% 이상이 무효표를 던졌는데, 이는 지난 번 대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투표율은 1차에 비해 조금 낮은 74.6%였고, 결선투표 투표율로는 1969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국제적인 평가로는, 독일과 함께 유럽 정계의 한 축인 프랑스에서 중도파가 승리를 거둬서 2010년대 중반부터 거세진 유럽의 극우주의 열풍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각종 악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과 기독교민주연합 정권도 향후 정권 재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평가 또한 있다.

- 프랑스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결과가 투표참가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도파인 에마뉼엘 마크롱 후보의 당선 확률이 하락하면서 극우 마린 르펜과 격차가 좁혀진 탓이다. 투표참가율이 높으면 예상대로 마크롱이 낙승하겠지만 기권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면 르펜이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이낸셜뉴스 2017.4.30)

- BBC가 분석한 마크롱 선거 운동

1. 운이 좋았다

마크롱 승리의 일부 비결은 '행운의 바람'을 탔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도 집권 가능성 1위로 꼽히던 중도우파 공화당 후보 프랑수아 피용이 아내 페넬로프와 두 자녀를 의원 보좌관으로 허위채용해 수년간 거액의 세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폭로된 '페넬로프 게이트'로 여론의 분노를 사면서 몰락했고, 그에게 기회가 왔다.

2. 영리한 판단

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마크롱은 애초 사회당 후보로 나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한 경험과 사회당의 낮은 지지율을 보고, 사회당 후보로 나서서는 여론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운동에 주목했다. 스페인의 모데모스, 이탈리아의 5성운동 등을 보면서 프랑스에서도 그런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이 있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3. 프랑스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앙마르슈를 설립하고 나서 그가 주목한 것은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시도했던 풀뿌리 운동이었다고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 에밀리 술테이스는 지적한다. 마크롱은 에너지는 가득하지만 경험이 없는 앙마르슈 운동가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위대한 행진' 캠페인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 30만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지 전단만 나눠준 게 아니라, 프랑스 전국을 다니며 2만5000여명의 유권자들과 약 15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했다. 캠페인의 우선 순위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난 유권자들은 그에게 프랑스 전역의 여론의 온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포커스 그룹이었고, 이런 캠페인은 사람들이 앙마르슈 운동을 알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유권자들을 방문하고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고 에밀리 술테이스는 설명한다.

4. 긍정적 메시지의 힘

마크롱의 정치적 페르소나에는 모순과 약점이 있었다. 인기 없는 올랑드 대통령의 후원을 받는 신인이자, 경제장관이었던 인물, 전직 투자은행 은행가가 이제 와서 풀뿌리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비춰졌다. 중도 좌파 후보가 공공부문 축소를 내걸었다는 것도 약점이었다. 이 점은 라이벌인 마린 르펜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지점이기도 했다. 르펜은 마크롱이 '엘리트들의 후보'이며, 그가 어필하는 정치 신인이 아니라고 공격했다. 프랑스 싱크탱크 테라노바의 분석가인 마르크 올리비에 파디는 “프랑스인들 사이에 매우 비관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그는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갔다”며 “마크롱은 매우 젊고 에너지로 가득차 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갖게 될 것인지 보여줬다. 그가 유일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한다.

5. 마린 르펜에 맞서

마크롱의 낙관적인 이미지에 비해 마린 르펜의 메시지인 반 이민, 반 유럽연합, 반 기성정치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마크롱의 선거운동 집회는 팝 음악이 흐르는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로 비춰졌다. 반면 마린 르펜의 대규모 집회는 병과 화염병이 날아드는 시위— 무거운

정치적 이미지, 분노한 이미지로 여겨지기 쉬웠다. 5월3일의 텔레비전 토론은 양측 모두 상대방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장이었다. 마린 르펜은 “공포를 전파하는 사제”이자 자신의 아버지 장 마리와 같은 극단주의자로 공격을 받았다. 마크롱은 사회주의자 꼭두각시이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랄도 하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위험한 도구로 비난 받았다. (한겨레, 2017.05.08.)

(3)프랑스 대선 결과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

- 1차 투표 이후부터 마크롱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은 이미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함. 유로존에 대한 긍정적 투자심리가 형성되어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프랑스 증시는 상승세 지속하였다. / 이슈리포트 17-1호(05.08)
- 2차 투표 직후 유로화의 가치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 기록하여 유로당 1.1023달러를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0.3% 상승하였다. 장기적으로 유로당 1.12~1.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제시되는 등 유로화 가치 증대 예상됨. / (HSBC, UBS 등)
- 마크롱의 당선은 ECB의 양적완화 해제 가능성을 증대시켜 유로존 통화정책회의(4/27)에서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를 언급하였으며, 시장에서는 빠르면 6월에 본격적인 출구정책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ECB는 당초 올 3월에 끝낼 예정이었던 양적완화를 9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나, 이후 통화부양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신호를 보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ECB는 국채 및 회사채를 매월 600억 유로씩 매입 중이다.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유럽 주가 및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동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여 외국인인 투자 증대 및 경제·증시·통화 가치 상승의 선순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
-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Brexit) 실현 가능성은 증대되는데 마크롱은 브렉시트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 이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크롱은 영국과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교류는 힘들 것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마크롱은 브렉시트 이후 금융 중심지로서 파리의 위상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주장해 왔다. 추가적으로 테러 위협 등 안보의 측면에서는 영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기대한다. / 17-1호(05.08) 이슈리포트
- 마크롱이 창당한 사회민주주의 정당 앙마르슈는 현재 프랑스 의회 전체 925석 가운데 단 1석도 차지하고 있지 않아 향후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정책 추진과 인사 기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과 유사한 상황 발생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마크롱은 가능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선 출마 희망자 3만 명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

IV. 프랑스 2017 대선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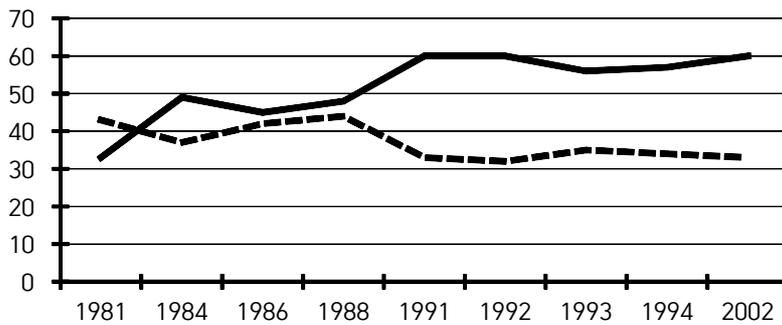
(1) 이데올로기 균열구조의 변화

산업구조 및 계급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균열구조 역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좌, 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의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도 변화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구분이 분명하였고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도 분명하였는데 비해서 2000년대에는 사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우로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각 정책별로도 이전에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지향이 모호해지면서 다양한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좌우라는 개념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2002년 소프레스와 장조레스재단 그리고 누벨 옵세르바퇴르 지가 공동으로 유권자 1000명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의 결과¹²⁾ 전체 응답자의 60%가 좌우라는 개념자체가 더 이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고 대답했고 33%만이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대답했다. 이를 볼 때도 프랑스 사회에서 좌우라는 개념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시대착오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통계와 비교해보면¹³⁾ 좌우의 개념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지난 10년간 의외로 안정되게 60%를 유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좌우개념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가 과반수를 넘은 것은 1984년인데 그 이래로 1991년에는 60%가, 1992년에는 56%가, 1994년에는 57%가 좌우로 나누는 개념자체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2> 좌우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좌우개념은 시대착오적이다.

— 좌우개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 - -

출처: www.tns-sofres.com/etudes/pol/140202_clivages_n.htm (2004년 4월 15일 검색)

두 번째는 계급에 대한 동일시이다.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69%의 프랑스인이 자기자신을 한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초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12) www.tns-sofres.com/etudes/pol/140202_clivages_n.htm (2004년 3월 4일 검색).

13) 소프레스에는 해마다 좌우 균열에 대해서 조사해왔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한 계급과 동일시함으로써 계급적인 균열이 프랑스 사회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좌우 균열의 약화현상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좌우에 따른 정책의 우호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의 프랑스인의 정책지향에 살펴보면 정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좌우의 분명한 정책적 지향을 보이는 정책(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사형제), 좌우정책지향의 완화(이민정책), 198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좌우균열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사회변화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새로운 합의영역(동성애,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여전히 좌우성향에 따라 분명히 다른 정책적 선호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좌우성향에 따라 상이한 정책지지가 상당히 완화되어 이민문제에 있어서는 좌우성향이 의미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좌우에 관계없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영역에서는 1980년 이래로 나타난 새로운 문제군으로 좌우에 관계없이 유사한 정책지향을 보여주었다.¹⁴⁾

좌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좌우일체감에 따른 정책적 지향을 보았을 때 프랑스 사회에서 좌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균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좌우의 균열이 남아있는 영역이 있고 새로운 합의 영역이 나타나며 또한 좌우성향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영역도 나타나서 좌우라고 하는 구분이 2002년 프랑스 사회를 설명하는 유일한 균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심층적 요인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정당에 대한 지지성향을 바꾸어 프랑스 정당체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프랑스 선거에 있어서 유럽 이슈의 중요성

이미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유럽문제는 프랑스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띠기 시작하였다(조흥식 2012). 2012년 대선은 성장대 안정이라는 구도로 올랑드 후보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결하였고 결국 이것은 유로권과 유럽 차원에서 안정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두명의 후보 이외의 군소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르펜과 멜랑송 역시도 극우와 극좌를 대표하면서 유로권 탈퇴나 리스본 조약 폐기와 같은 유럽적 쟁점을 선거의 중요한 논쟁 포인

14) 각 정책별로 살펴본 프랑스인들의 의식변화(단위 %)

	1990			2002			1990, 2002 차이
	좌파성향	우파성향	차이	좌파성향	우파성향	차이	
계급에의 소속감	63	53	10	58	62	4	- 6*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51	56	5	44	42	2	- 3*
동성애인정	50	31	19	80	72	8	- 11
여성의 경제활동인정	65	58	7	78	78	0	- 7
사형제의 부활	50	70	20	35	52	17	- 3
이민의 허용	54	25	29	62	41	21	- 8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반대	6	23	17	10	23	13	- 4
유럽확대에 찬성	21	37	16	30	41	11	- 5

출처: www.tns-sofres.com/etudes/pol/140202_clivages_n.htm(2004년 4월 15일 검색)

이 표에서 보면 동성애를 1990년 좌파성향의 프랑스인중 50%가 인정하였는데 비해 우파 성향의 프랑스인은 31%만이 인정하였다가 2002년에 이르러서는 좌파성향의 프랑스인은 80%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우파성향의 프랑스인은 72%가 인정하였다. 1990년 좌우성향의 차이가 19였는데 2002년에는 없어져서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현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990년과 2002년의 차이값이 적을수록 1990년과 2002년 사이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값이 클수록 그 문제에 대한 좌우프랑스인들의 의식변화가 수렴해가고 있는 것이다.

트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이미 2012년 선거부터 유럽은 프랑스 선거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도 역시 친유럽적인 마크롱과 반유럽적인 르펜의 대결은 TV토론에서 극명하게 대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친유럽적 마크롱인지 반유럽적 르펜인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전에 유럽선거가 오히려 국내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유럽이 지지후보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유럽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2017년 프랑스 대선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데올로기 중심의 선택이 상당히 해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좌우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어떠한 대안으로도 프랑스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실망감이 새로운 정치, 전통적인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선택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프랑스 선거의 종속변수였던 유럽이 이제는 독립변수가 되어 유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프랑스 선거의 중요 쟁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브렉시트와 2013년이후의 난민문제, 그리고 2008년 이후의 유럽의 금융위기 등 유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군들은 프랑스 정치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택을 이번 선거에서 요구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